

뉴스특보

새 정부의 문화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1일 새 정부의 12대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 발표했다. 이 확정안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부패없는 사회, 봉사하는 행정, 국가균형발전, 참여와 통합의 정치개혁을 핵심 기조로 삼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치, 경제, 과학, 복지, 교육 등 당장 발등에 떨어진 시급한 사안들부터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별 과제들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이 가운데 문화관련 정책은 '문화콘텐츠 제작·유통 기반으로서 방송매체의 역할 강화' 등 몇 가지뿐이다. 문화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노 당선자의 약속은 어디론가 실종된 것이다.

노 당선자는 후보시절 불교계에 '불교정책10대 공약'을 제시했고, 그 가운데 9가지 공약이 불교문화와 관련된 것이었다. 노 당선자가 불교문화에 큰 비중을 두었던 것은 불교문화가 불교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근간에 깔려 있는 '민족문화'라는 인식을 가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자들뿐만 아니라 문화계에서도 그런 노 당선자의 '문화관'에 많은 기대를 걸었다.

문화란 시대의 가치와 삶의 양식을 규정하는 영역으로서, 정치 경제와 더불어 사회를 구성하는 핵심요소다. 더욱이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로 규정되고 있다. '문화전쟁'은 이미 시작됐고,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지 않고서는 세계무대에서 설 수 없게 됐다. 이런 마당에 새 정부의 국정기조와 추진과제에 문화의 비중의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다.

불교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키고 불교 문화재 보존·관리 정책을 강화하는 등의 노 당선자가 제시했던 불교계 공약이 지켜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 아니다. 진정 우려스러운 것은 아직까지도 문화를 정치 경제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새 정부의 '문화관'이다.

한명우(취재1부 차장)

현대불교신문은 수행·포교지다 읽으신 후 가까운 이웃에게

현대불교신문은 수행·포교지입니다. 다 보신 뒤에는 버리지 마시고 가까운 이웃에게 주십시오. 신문에 담긴 단 한줄의 말씀이 여러분의 이웃을 제도할 수도 있습니다.

구독접수안내
수도권: (02)737-0090 부산 경남: (051)632-0064 대구 경북: (053)768-8008 광주 전남: (062)375-9986 전주 전북: (063)255-2274 대전: (042)489-9390 청주 충북: (043)258-3282 인천 강원: (032)937-5679 경북 강원: (033)643-5599 영주: (054)634-3429 밀양: (055)353-1196



▷대구 영남불교대학 학생 우학스님과 신도 1백여명이 20일 지하철 참사현장인 중앙로역에서 희생자 위령 촛불제를 올리 고 있다. 대구=고영배 기자

지하철 참사 불교계 잇단 온정

성금모금·염불봉사·천도재 등 다양한 활동

18일 발생한 대구 지하철 참사의 충격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불교계에서도 애도성명, 성금모금, 천도재, 자원봉사 등 아픔을 나누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조계종, 천태종, 진각종, 실천승가회 등 주요 종단과 단체들은 사건 발생 직후 애도문을 발표했다. 진각종은 효암 통리원장이 20

일 5백만원을 기탁한데 이어 전국 심인당에서도 성금모금을 시작했으며, 3월 9일까지 희생자를 위한 '추념봉사'를 봉행한다.

동화사, 영남불교대학 등 대구 지역 사찰과 단체들도 19일부터 염불봉사, 식사제공 등의 자원봉사 활동에 들어갔으며, 영남불교대는 20일 참사현장에서 위령촛불제를 거행했다. 합동분향소에는

19일 조계종 총무원장후보 종하·법장 스님이 유족을 찾아 위로했다. 관련기사 5면

태고종 경복교구중앙원은 23일 사건 현장인 중앙로와 합동분향소에서 희생자를 위한 천도재를 봉행했으며, 서울 조계사도 21일 대웅전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조만간 천도재를 봉행할 예정이다.

한명우 기자 nmwhan@buddhapia.com

24일 조계종 31대 총무원장 선거

조계종 제31대 총무원장 선거가 24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조계사 대웅전에서 실시된다.

총무원장 선거인단은 중앙종회의원 81명과 교구 선거인단 240명 등 모두 321명이며 투표가 끝난 후 즉각 개표를 실시, 1시간 이내에 당선자가 확정된다. 당선자는 곧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증을 교부받는다.

투표는 종회의원, 교구 선거인단 단 순으로 진행되며, 선거인단은

위험물과 촬영도구를 소지하고 투표장에 들어갈 수 없다. 선거결과 치주사보 한명우 기자

"가족을 부처님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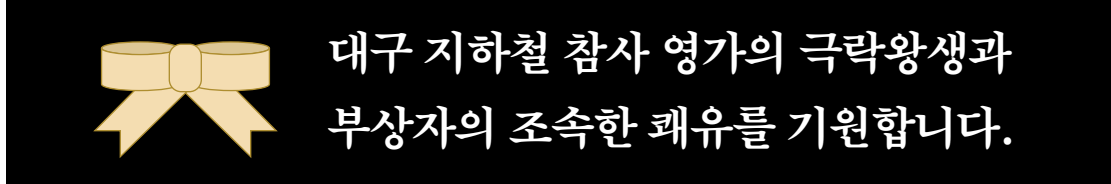
올 봉축표어·캐릭터 확정

올해 부처님 오신날 봉축 표어와 동자승 캐릭터가 확정됐다.

조계종 봉축위원회는 지난 1월 23일부터 2월6일까지 공모한 159



개의 표어를 심사한 결과 당선작에 강정운 씨(경기 부천)가 응모한 '가족을 부처님처럼'을 확정했다. 봉축위는 "올해 봉축 행사를 어린이와 부모 모두가 참여하는 가족 중심의 행사로 적극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명우 기자



▷본사 임직원 일동은 금어의 2%를 성금으로 전달했습니다.

북한산 관통도로 관련 토론회 아르바이트생 동원 현금 살포

"차비명목으로 받았다" ... 공사재개 노린듯

한 시민단체가 주최한 북한산 관통도로 관련 토론회에서 현금 살포되고 아르바이트 학생이 동원되는 등 공사재개를 목적으로 한 조직적인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

20일 (사)한국교통시민협회(회장 김기홍)가 주최하고 세종문화회관 4층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사패산구간 공사 추진에 관한 공청회'가 끝난 뒤, 분수공원에서 토론회에 참석한 40~60대 10여명이 한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받는 현상이 본지에 의해 포착됐다(사진).

현금을 받은 한 사람은 "서울 성동구에서 왔으며 택시 기사를 하고 있다. 교통방송에서 연막이 와서 오게 됐다. 공청회가 끝난 뒤 차비로 돈을 받았다"고 털어놓았다.

토론회에는 아르바이트 학생도 동원됐다. 대학생으로 보이는 20대 청년 6~7명은 토론회 안내를 보고 있던 20대 여자에게 "대학생인데 아르바이트로 왔다"고 말했다. 기사가 신문을 밝히고 재차 확인을 요구하자 학생들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왔다. 이런 문제에 끼여 듣고 싶지 않다"며 황급히 자리를 피했다. 또 토론회가 끝나자

대학생으로 보이는 30여 명이 안내석에서 참석 확인 서명을 하기도 했다.

돈 살포와 아르바이트생 동원은 19일 경기도 내 33개 시민사회단체가 낸 성명서에서 최근 관통도로 찬반 논란과 관련 배후세력으로 개발업자와 협력자를 거론한 부분과 궤를 같이해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여기에 토론회 입구에서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가 관통도로 공사 조속재개를 주장하는

유인물 10여점을 펼쳐놓은 점도 강한 의구심을 자아냈다. 그러나 한국교통시민협회 김기홍 회장은 "현금 살포와 아르바이트 학생 동원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한편 20일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불교환경연대 공동대표 수경스님 등 50여명은 '노무현 정부의 환경친화 정책 추진과 대선공약 이행 촉구를 위한 기도장전'을 봉행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한국교통시민협회 주최 '서울외곽순환도로 공사추진 공청회'가 끝난 뒤 교통시민협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이 동원된 사람들에게 돈을 건네주고 있다.

재가불자 수행실태 현황조사

조계종, 효율적 교육 위한 기초자료로

3~4월 두 달동안

조계종이 종단 수행체계 확립을 위해 제도 정비 및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재가 불자들에게 대한 수행실태 현황 조사를 실시한다.

조계종 포교원이 주관하는 이번 조사는 3월부터 4월까지 2개월간 수행법, 수행시간, 수행장소 등 재가 불자들의 수행 전반에 관한 설문으로 진행된다. 조사대상은 전국 473개 사찰의 기본교육 이수자

와 조계종 포교사단 소속 포교사, 조계종에 등록된 47개 불교대학 수강생들이다.

조계종 포교원은 조사 결과를 분석해 빠른 시일 내에 신도교육 체계를 정착시키고 효율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지역, 교구, 사찰신도회의 조직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는데도 이번 조사자료를 활용할 방침이다.

조계종 포교연구실장 진명스

님은 "재가불자들이 어떤 수행 방법으로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 언제, 얼마나 수행하는지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조계종 교육원이 진행하고 있는 승가교육체계 개선과 맞물려 있는 만큼 종단 수행·교육체계 확립을 위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봉근 기자 bypark@buddhapia.com

천년고찰 파주 보광사
남글당 영각전
부처님 몸안에서 왕성크락하소서
031)948-4440
안글도메인·남글당

"자비의 등 지혜의 등" 찬덕 연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연꽃잎 제조특허(특허 제122168호) / 팔각등 실용신안(등록 제098634호) 의외등록 다수 보유업체 ◆

"연등용 전선 케이블" 찬덕 연등이 시공하면 기초부터 다릅니다.

설계에서.. 시공까지..

지금 전국에선 "연등전선케이블"의 역사가 바뀌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시공하여 드립니다.



* 시공된 연등용 전선 케이블 *



* 연등에 사찰이름을 인쇄할 경우 시간이 소모되오니 미리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찬덕 연등제작사 전화: 031)792-6288, 794-4055 / FAX 031)794-6288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찬덕홈페이지: www.chanduk.com e-mail: chanduk21@hammail.net